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92

나무 위에 올라간 삭게오

(요한복음 11:45~12:8,
누가복음 19:1~10)



**“자네 그거 들었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네!
직접 봤다는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야!”**

**“정말 놀라운 일이지.
나도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소문을
다 믿지 않았네만 확실히 예수님은 특별한 분임에
틀림이 없네! 앞으로 무조건 믿고 따를 걸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널리널리 퍼졌어요.**

이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러자 평소 예수님을 시기하고 헐뜯던 사람들이
서둘러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 예수란 자는 별의 별 신통방통한
일들을 벌이고 있소!
만일 우리가 이 자가 하는대로 가만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자를 따르고,
더 나아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어허.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우리가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사실이
로마 사람들에게라도 전해지면!
로마 제국이 우릴 가만 두지 않을 것이요!”**

**“내 말이 그 말이요!
어허...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그 때, ‘가야바’라는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한 사람만 없애 버리면 나라 전체가
조용해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가야바의 말에 잠시 모임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금세 모든 사람들은
가야바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한편, 하루는 예수님께서서 여리고 땅을 지나게 되셨어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또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죠.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 짓을 하는 배신자 녀석!”**

**“이봐, 그래도 우리가 삭개오 녀석보다
키는 훨씬 더 크지 않은가!”**

**“헤헤헤. 하기가 삭개오가 키가 많이 작긴 하지.
마치 꼬마처럼 말이야. 헤헤헤.”**

**그건 정말이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무척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라도 하면
그 속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예수님이 예리고의 거리를 지나시던 그 날도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있었어요.

“아이 참,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텐데.
아무리 점프를 해봐도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 원! 아, 옳거니!”

삭개오의 눈 앞에
커다란 돌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삭개오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기로 했죠.

마침내 예수님께서서 거리를 지나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러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날, 예수님의 눈에 유독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였죠!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올려보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이제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나무에서 후다닥 내려왔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저 거머리 같은 삭개오의 집을 가신다고?”

“대체 저런 죄인의 집에는 왜 가시는 거야??
나 완전 예수님께 실망했어 실망!”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동안 내가 땃땃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긴 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거야.
오늘 꼭, 내 죄를 용서 받고 싶어!’**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삭개오는 자기의 결심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남을 속여서 얻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의 네 배로 꼭 갚고 말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삭개오의 결심에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너와 같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해주기 위해 온 것이란다.”

부자였던 삭개오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 구원 받은 그 날 밤
그 어느때보다도 풍족한 마음을 느꼈답니다!

어느덧 유월절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을 찾으셨죠.
남매의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고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식사했어요.

제자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마리아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
‘향유’를 한 병 가져왔어요!

**“아니, 마리아.
그 향유는 엄청 나게 비싼 거 아닙니까?”**

**“맞아요, 형님! 저건 일꾼들 1년치 임금과
맞먹는 아주 귀한 향유예요!”**

모두들 마리아가 향유로 무엇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그 때, 마리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그 기름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그 행동은, 예수님께 믿음과 존경을 표현하는
가장 예의있는 행동이었죠.
어느덧 그윽한 향유 냄새가 온 집 안에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마리아에게 벌척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보시오 마리아! 그렇게 비싼 향유라면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소?”**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돈을 관리하는 담당이었어요.
하지만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어서
종종 모두의 돈을 제멋대로 꺼내 쓰곤 했죠.

그래서 유다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유다의 말에 갑자기 잔치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늘 주변에 있는 법이니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거란다.
마리아는 그 날에 대비해서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잔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리송했을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진 않으실 거라고?**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6일이 더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답니다!**

꿈에서 갠 요셉은,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리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구나!
마리아를 의심하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하루빨리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녀와 아기를 잘 보살펴 줘야겠어...!”**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한 달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을 구원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까워졌답니다!